

『주홍글자』에 나타난  
자연과 등장인물의 상징성

The Symbolism of Nature and Characters in  
*The Scarlet Letter*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최 정 은

# 『주홍글자』에 나타난 자연과 등장인물의 상징성

지도교수   김   재   풍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23 2007-04-09

영 어 교육 전 공

최   정   은

최정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나 하 엽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기 군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재 풍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	1
I. 서 론 .....	4
II. 자연의 상징	
1. 장미덤불 .....	8
2. 빛 .....	11
3. 숲과 시내 .....	16
III. 등장인물의 상징	
1. 헤스터 프린 .....	23
2. 덤즈데일 .....	29
3. 칠링워드 .....	32
IV. 결론 .....	38
참고문헌 .....	40

## ABSTRACT

# The Symbolism of Nature and Characters in *The Scarlet Letter*

By Choi Jung Eun

Advisor : Prof. Kim Jae Pung, Ph. 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ymbolism of nature and characters shown in *the Scarlet Letter* by Nathaniel Hawthorne. This study analyzed its symbolism based on the spiritual background of the age and especially focused the symbolism of nature and characters on the Puritanism and Transcendentalism.

The rose bush takes the part of resistance against Puritanism and Puritanical society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as an embodiment of humane heart of nature. The sunlight that also has many-sided symbolic meanings and finally is the forest which is depicted as a place where witches gather and where souls are signed away to devil. The rose bush symbolizes the sympathy to the sorrow and frailty of human beings for the cold-heartedness of the Puritans. The weeds in front of

the prison door and its color in the said work symbolized the dark and strict aspects of the Puritanism, while the red color of the rose created the opposite atmosphere. The author wanted the rose bush to ease the dark side of his work and gave the reader a sign of his double-sided attitude. The sunshine has been considered as various symbolic meanings by many critics; however, it seemed that it would be the exposure of human disposition shown to human beings by nature. Obviously,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fastidious attitude of the Puritans on crime.

I analyzed symbolism of characters. Hester who is the most complicated and has various aspects and Dimmesdale is a man shown well his sin through psychology, finally Chillingworth who is original character. It is significant to notice that such persons as Hester and Dimmesdale who do their utmost to overcome the natural depravity eventually attain not only the moral growth and spiritual harmony but also salvation. And nature also shows them sympathy. It is also important that nature has some characteristics when it sympathizes with human being. Nature does not show sympathy until the human being decides to live by nature denying human-law. Hester had to suffer from the fate of dishonor and that had to put the scarlet letter after having an extramarital love affair with Reverend Dimmsdale, and had to be confined in the prison. The sunlight shining to Hester who have just finished the term of her imprisonment was depicted only as the intention of exposing the symbol of dishonor. However, the sunlight appeared at the time of her throwing away in the forest the scarlet letter put on her chest as an intention of escaping from all restriction that has confined her could be seen as the disposition of nature with pagan attitude against the Puritanism. After all, the sunligh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fastidious attitude towards crime, or nature's evil

attitude even if it would disappear in sooner time in the opinions and position of the Puritans, or the lack of sympathy, while it was the exposure of human disposition of nature or the approval of God and nature in the point of Transcendentalism.

In conclusion, we should understand the symbols of nature and characters not only are based on Transcendentalism and Puritanism, but also can be different in the various aspect.

## I. 서론

17세기 뉴잉글랜드 사회 속에서 청교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생활감각과 그들의 죄의식에 관한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관심을 표출한 『주홍글자』는 간통사건과 관련된 세 주요 인물들의 관계와 심리의 변화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1804년 미국 매사추세츠 세일렘의 청교도 집안이자 뉴잉글랜드의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호손은 보텐 칼리지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12년 동안 독서와 창작에 힘썼다. 하지만 대학 시절의 경험을 반영한 처녀작 『판쇼』를 자비 출판했지만 완전 실패하여 모든 책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런 중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에 힘써, 1850년 3월에 『주홍글자』가 탄생되었으며 구성이 치밀하고 주제 의식이 강해 19세기 미국 문학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sup>1)</sup>

그의 걸작 『주홍글자』는 1850년 간행되었고 17세기 중엽, 보스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주홍글자』는 청교도주의의 인습적 도덕사회에서 애정도 없이 미모의 여인 헤스터는 아버지의 강요로 부유하고 나이 많은 의사 칠링워드와 결혼한 상태이다. 늙은 학자와 결혼한 헤스터가 뉴잉글랜드라는 신세계에서 젊은 목사와 불륜의 관계로 인해 냉혹한 제재를 받으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윤리소설인 『주홍글자』는 남편보다 먼저 매사추세츠 베이식민지의 보스턴에 와서 살던 헤스터가 그 지역의 존경받는 목사 딘스데일과 사랑에 빠진다.

그 결과 딸을 낳고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은 곧 조그만 마을에 퍼지게 되고 동네 주민들은 헤스터를 감금하고 엄격한 청교도식 재판을 하며 일생 동안 간통이라는 의미의 주홍글자 A를 가슴에 달고 다니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려는 주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 윤영춘, 『주홍글씨』 (신원문화사, 2003), p. 2.

그녀는 비난과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끝내 비밀을 지킨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전혀 반성의 기미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청교주의적 현실의 세태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종된 줄 알았던 남편 칠링워드가 나타나고, 그는 신분을 감춘 채 헤스터와 덤스테일 사이를 오가며, 비밀을 캐내 복수하기로 마음먹는다.

홀로 비난을 감수하는 헤스터와 악의 화신처럼 변해가는 덤스테일 사이에서 날이 갈수록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목사 덤스테일은 마침내 사람들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마음먹는다.

호손이 청교주의 사상과 정서가 깊은 뉴잉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논할 때 청교주의를 따로 분리시켜 말할 수는 없다. 털끝만큼의 죄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의인만을 앞세우며 외적인 경건과 율법, 교리만을 강조했던 청교도 사회는 죄의 불가피성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죄인들을 무참히 격리시키는 냉혹함과 편협함 그리고 엄격함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청교도 사회는 정부와 경제적 환경, 그리고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 안정을 제공했던 사회였다. 영국의 탄압을 피하여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찾아 떠난 청교도들은 절대적인 신권통치를 강조하는 교리를 기본으로 삼고 완벽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위하여 오직성경을 통한 신앙과 생활을 지침으로 삼아 고도의 절제된 생활을 했다. 다시 말해, 청교도교의의 중심은 신과의 성스러운 약속이며 칼빈의 예정설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운명 내지 행위는 신이 예정하는 것이며, 원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은 신에 의해 선출된 소수자만이 신의 은총에 의해서 구제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무서워하고, 선악, 생사, 죄를 의식하는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여주인공 헤스터의 죄에 대해 청교도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냉혹한 반응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헤스터의 죄는 성경의 십계명의 일곱번째 계율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열정을 자유의지에 의해 마음대로 표출한 것이 당시의 금욕과 정결을 최고 가치로 삼아 개인의 욕구를 자제하는 것을 요구하던 청교도 사회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단두대 위에 서서 형벌을 받고 있던 헤스터에게 특히 같은 여성들이 더 큰 비난과 혐담을 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규범과 관습들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호손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앙적인 갈등을 현실 속에서 겪어야 했다. 엄격하고 억압된 청교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청교주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비판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나 엄격한 규율에만 치중하여 사랑과 용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시대적 분위기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주홍글자』는 사랑과 용서가 부족한, 그리고 오로지 엄격한 법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청교도 사회를 호손은 서술하였다.

호손의 청교주의 비판의 주된 관점은 비인간적인 냉혹함과 잔인함에 관한 것이고, 죄를 범한 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수많은 고통과의 투쟁을 거친 정신적 성장에 이르는 인간의 변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죄에 대한 청교주의 식의 형벌보다는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딘즈데일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과 같은 심리적 갈등을 표출시킴으로서 독자들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청교도사회는 철저한 제정일치의 사회적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만의 강력한 규범과 법규를 제정하여 개인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제한하는 사회로 호손의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많은 비평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 작품에 대한 주제는 간음에 대한 죄 자체가 아니라, 헤스터, 딘즈데일, 칠링워드 세 주요 인물에 나타난 죄의 심리적 결과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심리적 결과”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영혼구원 과정으로서, 딘즈데일 목사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이로 인한 자신의 심한 정신적 갈등을 거쳐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이는 헤스터와 칠링워드가 소홀히 취급되는 위험이 있고, 딘즈데일의 구원을 그렇게 안이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 엄격한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 그의 참회와 구원에는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딤즈데일의 구원에 대한 애매성은 다른 작품에도 마찬가지이며, 근본적으로 호손의 종교관에 기인한다.

앞에서 청교주의에 대한 호손의 태도와 이를 기초로 한 그의 상징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본론에서, 청교주의와 초절주의의 견지에서 그의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초절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통하여 신을 알 수 있다. 이 관념은 인간, 신, 및 자연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에머슨은 이러한 관념을 유럽 로맨티시즘에서 습득하였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청교주의와 초월주의를 동시에 기초로 하는 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호손의 작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그 상징적인 의미는 소설이 진전 되어 감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손의 상반되고 다양한 상징성에 초점을 맞춰 이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Mildred Silver, *A brief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Kagawa-ken, 1966), p.145.

## II. 자연의 상징

### 1. 장미 덩불

이 작품에서 장미덩불은 청교도들의 냉혹함에 대해 인간의 슬픔과 나약함에 동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다. 옥문 앞의 잡초며, 옥문의 색깔 등은 청교도 사상의 어둡고 엄격한 면을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미의 붉은 색깔은 반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다. 작가는 그의 작품의 어두운 면을 이 장미 덩불이 완화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어 작가의 양면적 태도에 전조를 드리운다. 이 주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자연이 Heart라는 용어로 부각 되어 질수 있다는 사실은 청교주의와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초월주의와도 명백한 관련이 있다.

먼저, 호손이 사용한 적색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빨간색은 사랑, 신속함, 동정심, 약속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반면, 검은색과 회색은 청교도적인 특성-동정의 결핍, 우울함, 냉소와 엄격함- 그리고 도덕적 황무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홍글자, 장미 덩불, 펄은 색깔에 있어서 특징들이 있으므로 서로 근접한 관계가 있다.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주홍글자는 수치의 상징이라는 것을 펄에 의해 명시되어진다.

When the young woman- the mother of this child- stood fully revealed before the crowd, it seemed to be her first impulse to clasp the infant closely to her bosom; not so much by an impulse of motherly affection, as that she might thereby conceal a certain token, which was wrought or fastened into her dress. In a moment, however, wisely judging that one token of her shame would but poorly serve to hide another, she took the baby on her arm, and, with a burning blush, and yet a haughty smile, and a glance that would

not be abashed, looked around at her towns people and neighbors.<sup>3)</sup>

장미 덤불은 느낌상에서 냉정함으로부터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리차드 하터 포겔은 자연의 생명력에 강조를 두고자했다.

The rosebush before the prison in Chapter 1 of *The scarlet letter* is an instance of this misleading simplicity. It stands, says Hawthorne, "in token that the deep heart of nature can pity and forgive." The rose is also, however, Hester, a red rose against the gray Puritan background; and therefore it is the scarlet letter, the natural passion which the prison exists to quell. Beside the fortress-like prison the rose seems pitifully frail, but it is strong with the power of natural vitality.<sup>4)</sup>

분명한 것은 "거의 그 근원으로부터 발원한 이 장미 덤불"이 인간 존재의 도덕적 성장을 요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법과 자연법 사이의 차이로부터 나온 비참함에 대해 말하며 피를 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손은 인간의 결함, 약함 및 비탄을 묘사하는 그의 작품의 어두운 면모를 경감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These shades are both of hell, and there is no hue of heaven in *The Scarlet Letter* which really offsets them. Sunlight is the nearest approach to it, and its sway is too fleeting to have any great effect. In the forest scene of chapters 16-19 sunshine, "as with a sudden smile of heaven," bursts over Hester and Dimmesdale, but this is merely a momentary relief. The hope which accompanies it is short-lived, delusory, and dangerous.

It may serve, let us hope, to symbolize some sweet moral blossom, that may be found along the track, or relieve the darkening close of a tale of human frailty and sorrow. (122)

---

3)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1959), p. 129.

4) Richard Fogle, *Hawthorne's Fiction : The light and the dark*. (Th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64), p. 38.

이 문단에서 이 작품의 전체 흐름과 동향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추한 건축물” 즉 감옥과 “우영, 명아주, 애플페루”는 부패한 문명 뿐 아니라 청교도인들 또는 청교주의를 상징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장미덤불이 단순히 청교주의와 청교주의적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일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인도적 감정의 구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호손이 전적으로 초절주의자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초절주의에 대한 호손의 동경을 나타내는 것 같다.

They, too, overestimated the natural virtue of man and were credulous of the novel and untried. They lacked realism - the realism of either the man of the world or the calvinist - fed upon visionary mist; road their idiosyncratic hobbies humorlessly and without stop of check.<sup>5)</sup>

분명한 것은 호손이 이 소설을 청교주의를 그 영적 배경으로 하여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그는 때때로 청교주의를 매우 심하게 비평하였으며, 초절주의를 비평하는 한편 이를 동경하였다. 여기서 단언하건데, 호손은 양향적인 상징성이 결코 나올 수 없는 양향적 태도를 지녔다.

## 2. 햇빛

이제 우리가 논의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빛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의미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빛 또한 다각적인 상징적 의미들을 갖고며, 때때로 비평가들은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 호손이 자기 방식의 상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

---

5) Austin Warren, *Nathaniel Hawthorne* (American Book Company, 1934), p.14.

타나는 특징들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상징들이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그가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저서가 진전되어 나감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그 외관상의 면모 및 의미들의 변이와 조화되는 그의 상징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그 상황들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손은 자연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줄거리 속의 인물들의 다양한 정신 상태와 정서적 행위를 연관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대한 자연의 반응을 빛과 어둠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자연 속에서 도덕성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외면적인 사물 속에 구체화 시키고 있다. 만약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이 눈에 띄면 그것은 마치 우리 내부의 기쁨이 외부의 자연의 아름다운 상태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 장마다 명암이 교차되면서 인물들이 처한 환경은 물론 그들 내면의 세계, 심리적 양상을 투영해 내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심성을 빛과 어둠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김영철 교수는 빛과 어두움을 “외관상의 면모와 본질”로 다루었는데, 일광을 “외관상의 면모”로, 어두움을 “본질”로 정하였다.

As in the case of some great works of literature, that of Hawthorne is also grounded in the assumption of basic contrast between appearance and essence; and, Hawthorne is no exception in assigning daylight to appearance and darkness to essence. His main distinction was the degree of intensity with which he emphasized the darkness of the essence. Accordingly, it is fair to say that daylight in Hawthorne's work is defined as the stage of life prior to the journey into darkness in pursuit of purer and more reliable light in which one can have no fear of darkness. And it is also proper to observe that daylight is only a supporting character in the drama of heart and soul presented by Hawthorne. Its function is largely negative in the sense that its fundamental deficiency uniformly points to the necessity of taking a journey to the region of darkness, which is given the main role. <sup>6)</sup>

또한 리처드 하터 포겔은 빛의 문제를 다루면서 “호손에게 있어서 빛은 디자

6) 김영철, *Nathaniel Hawthorne and his Concept of Salvation* (Seoul, 1981), pp.7-8.

인의 명료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관상의 면모와 현실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Thus Hawthorne's effects of light - his shadows, his mirror images, his masquerades - all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appearance and reality. Hawthorne's ambiguity involves both light and darkness. As light it is the means of seeing through opacities; as darkness it is the difficulty of seeing.<sup>7)</sup>

물론 빛과 일광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일광을 다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보고 싶다. 청교주의를 이 작품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볼 때, 나의 분석을 청교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 약 3개월 된 아기 펄을 헤스터가 자신의 품에 가까이 끌어안고 있는 가운데, 펄은 “너무나 생생한 일광을 보고는 눈을 깜빡이며 그 작은 얼굴을 한쪽으로 돌렸다.”

She repelled him, by an action marked with natural dignity and force of character, and stepped into the open air, as if by her own free will. She bore in her arms a child, a baby of some three months old, who winked and turned aside its little face from the too vivid light of day; because its existence, heretofore, had brought it acquainted only with the gray twilight of a dungeon, or other darksome apartment of the prison. (129)

여기서 너무나 생생한 일광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청교도의 까다롭고 위선적인 태도를 상징한다. 바라보는 양날 칼들이 너무도 사납도록 증오로 타오르고 있어 헤스터로서는 그들에 대항하여 서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일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헤스터의 감금기간이 다 차고, 감옥문을 나오자, 태양은 마치 “주홍 글씨를 드러낼” 심산인양 밝게 비친다.

---

7) Richard Fogle, op. cit., p. 11.

Hester's term of confinement was now at an end. Her prison-door was thrown open, and she came forth into the sunshine, which, falling on all like, seemed, to her sick and morbid heart, as if meant for no other purpose than to reveal the scarlet letter on her breast.

(11)

여기서 우리는 호손이 자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에머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호손은 자연이 악의적이고 당황케 한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일광이 청교주의의 “동정심의 결핍”을 상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초절주의에 기초한 해석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호손에게 초절주의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없다. 나는 이 논문에서, “빛”이 자연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이번 기회에 초절주의에 기초하여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초절주의는 “인간은 자연을 통하여 신을 알 수 있다”는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

청교도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에서, 헤스터는 칠링워드의 숨겨진 비밀을 알리기 위해 덤즈데일을 만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헤스터와 덤즈데일 뿐 아니라, 호손 자신도 잠시 동안 청교주의로부터 분리되어 있게 된다. 그 후 헤스터는 그녀의 자유, 열정, 및 자연미를 제한해 온 기장과 모자를 벗어버리고 자연은 그들에게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

All at once, as with a sudden smile of heaven forth burst the sunshine, pouring a very flood into the obscure forest, gladdening each green leaf, transmuting the yellow fallen ones to gold, and gleaming adown the gray trunks of the solemn tress. The objects that had made a shadow hitherto, embodied the brightness now. The course of the little brook might be traced by its merry gleam afar into the wood's heart of mystery, which had become a mystery of joy. Such was the sympathy of nature—that wild, heathen nature of the forest, never subjugated by human law, nor illumined by higher truth— with the bliss of these two spirits! Love, whether newly born, or arouse from a deathlike slumber, must always create a sunshine, filling the heart so full of radiance, that it overflows upon the outward world.

Had the forest still kept its gloom, it would have been bright in Hester's eyes, and bright in Arthur Dimmesdale's! (368-369)

여기서 빛은 신과 자연을 허용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한번 더 단언하건데 이 일광은 자연의 인도적 감정의 구현이다. 음악에서는 하나의 음정이 다른 음정과 조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 존재에 대한 자연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은 인간이 인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에 따라 살고 그들의 마음이 지시하는 바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그 동정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up>8)</sup>

"Mother," said little Pearl, "the sunshine does not love you. It runs away and hides itself, because it is afraid of something on your bosom. It will not flee from me, for I wear nothing on my bosom yet!"

"Nor ever will, my child, I hope," said Hester.

"And why not, mother?" asked Pearl, stopping short. "Will it not come of its own accord, when I am a woman grown?"(129)

작가는 죄를 범한 헤스터에게는 어둠을, 죄의 씨앗이지만 죄가 없는 펄에게는 빛을 부여하였다. 헤스터와 펄이 원시림이 우거진 신비스러운 숲 속 오솔길을 걸어갈 때에 상쾌한 햇빛은 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사라져 버린다. 펄이 잡으면 잡히던 햇빛은 헤스터가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것을 보아 어둠은 죄를, 빛은 죄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호손은 빛과 어둠의 사용으로 작품 속에서 시각적 효과를 성공시켰으며, 작품 구성상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빛과 어둠은 도덕적, 심리적 색채로 사실상 작가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좀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심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빛은 광명과 행복 그리고 축복과 선을 상징하고 어둠은 숲과 어두움, 죄와 악, 인생의 애환을 상징한다.

---

8) Hyatt H. Waggoner, *Hawthorne: A Critical Study* (Cambridge, 1963), p.144-145.

### 3. 숲과 시내

이 작품에서 나타난 숲은 특정한 사회적 의식과 관습이 없는 자연세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숲 또한 다양한 방법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숲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두 가지 상이한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도덕법이 자연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그의 상징성을 고려해 보기 원한다. 이 견지에서 보면, 숲은 마녀들이 모이는 곳, 영혼들이 악마에게 서명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숲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제4장 끝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why dost thou smile so at me?" inquired Hester, troubled at the expression of his eyes. "Are thou like the Black Man that haunts the forest round about us? Hast thou enticed me into a bond that will prove the ruin of my soul?" (163)

이 문맥에서, 우리는 장미덤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동정적인 분위기를 거의 볼 수 없다. 여기서 숲은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여주인 히빈스의 말은 숲의 특징을 재확인해 준다. 만족스런 결과를 가지고 총독의 관저를 떠나는 헤스터에게 여주인 히빈스가 접근한다. 그러나 헤스터는 숲속에서 한밤중에 벌어지는 마녀들의 모임에 그녀와 동행하자는 제의를 거절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Hist, hist!" said she, while her ill-omened physiognomy seemed to cast a shadow over the cheerful newness of the house.

"Wilt thou go with us tonight? There will be a merry company in the forest; and I well nigh promised the Black Man that comely Hester Prynne should make one."

"Make my excuse to him, so please you!" answered Hester, with a triumphant smile. "I must tarry at home, and keep watch over my

little Pearl. Had they taken her from me, I would willingly have gone with thee into the forest, and signed my name in the Black Man's book too, and that with mine own blood!" (226-227)

숲의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들 중 하나는 『영맨 굿 브라운』 일 것이다. 굿맨 브라운은 사악한 힘의 번개에 맞는 영웅으로 묘사된다.

We notice that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shade and degree, most of the Hawthorne characters are presented as figures who are struck with a lightning of evil force.<sup>9)</sup>

이 숲은 어두운 숲 즉 밤은 도덕적인 성장 및 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행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마녀들이 알게 되는 장소를 상징한다. ‘지금부터 해 뜨는 시각 사이에 행해져야 한다’는 구절은 인간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밤의 여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또한 그가 악마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로 하늘을 아래로는 믿음을 두고 나는 굳게 맞설 것이다”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그가 존경해 온 친숙한 사람들 뿐 아니라, 그의 아내인 페이스까지도 만나게 된다.

The next moment, so indistinct were the sounds, the doubted whether he had heard aught but the murmur of the old forest, whispering without a wind. Then came a stronger swell of those familiar tones, heard daily in the sunshine or Salem village, but never until now from a cloud of night. There was one voice, of a young woman, uttering lamentations, yet with an uncertain sorrow and entreating for some favor, which, perhaps, it would grieve her to obtain; and all the unseen multitude, both saints and sinners, seemed to encourage her onward.

"Faith!" shouted Goodman Brown, in a voice of agony and desperation; and the echoes of the forest mocked him, crying, "Faith! Faith!" as if bewildered wretches were seeking her all through the wilderness.

The cry of grief, rage, and terror was yet piercing the night, when the

---

9) 김영철, op. cit., p.54.

unhappy husband held his breath for a response. There was a scream, drowned immediately in a louder murmur of voices, fading into far-off laughter, as the dark cloud swept away leaving the clear and silent sky above Goodman Brown. But something fluttered lightly down through the air and caught on the branch of a tree. The young man seized it, and beheld a pink ribbon.

"My Faith is gone!" cried he, after one stupefied moment. "There is no good on earth; and sin is but a name. Come, devil; for to thee is this world given."<sup>10</sup>

우리는 “지구상에 선이란 없어, 그리고 죄는 이름일 뿐이야. 오라 악마여, 그 대에게 이 세상이 주어졌으니”라는 구절은 “절대적인 악행”에 대한 교의를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 구절이 호손의 청교도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교도의” 숲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헤스터는 청교도인도 아니고 그 단체의 일원도 아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정신과 열정을 가진 여인이다. 헤스터에게 있어서 보스턴을 떠나기로 마음먹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청교도 규칙에 의해 지배를 받아 온 덤즈데일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녀의 자연적인 힘과 확신을 가지고 덤즈데일을 설득한 후에, 헤스터는 또한 그녀의 결정으로 인해 기운을 되찾았음을 느끼며, 주홍 글씨를 없애고 그것을 던져 버리고는, “그녀의 머리를 억누르던 한 모자”를 벗어버린다. 이제 그녀는 그 풍부하고 어두운 색의 머리카락을 어깨위로 늘어뜨린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윤기 있는 모습은 남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돌아온 듯 보인다.

So speaking, she undid the clasp that fastened the scarlet letter, and, taking it from her bosom, threw it to a distance among the withered leaves. The mystic token alighted on the hither verge of the stream. With a hand's breath farther flight it would have fallen into the water, and have given the little brook another woe to carry onward, besides the unintelligible tale which it still kept murmuring about. But there lay the embroidered letter, glittering like a lost jewel, which some ill-fated wanderer might pick up, and thenceforth be haunted by strange phantoms of guilt, sinkings of the heart,

---

10) Ibid., pp. 106-107.

and unaccountable misfortune.

The stigma gone, Hester heaved a long, deep sigh, in which the burden of shame and anguish departed from her spirit. Oh, exquisite relief! She had known the weight, until she felt the freedom! By another impulse, she took off the formal cap that confined her hair; and down it fell upon her shoulders, dark and rich, with at once a shadow and a light in its abundance, and imparting the charm of softness to her features. There played around her mouth, and beamed out of her eyes, a radiant and tender smile, that seemed gushing from the very heart of womanhood. (367-368)

호손의 태도에 유의해 볼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는 “이교도 자연” 또는 “자연의 동정심”이라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썼다. 여기서 마녀들이 모이는 숲과, 헤스터와 딘즈데일을 그 팔 안에 감싼 관대한 마녀 사이에 극명한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다. 자연은 인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들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자연에 따라 살고자 할 때 인간에게 동정심을 보인다. 그밖에도, 숲은 헤스터의 놀이 친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숲 속에서 즐겁게 뛰노는 펄에게 이 숲은 그녀가 있기에 적합한 곳인 듯이 보인다. 숲 뿐 아니라 동물들과 야생화들도 역시 펄에게 동정을 보인다.

Pearl had not found the hour pass wearisomely, while her mother sat talking with the clergyman. The great black forest—stern as it showed itself to those who brought the guilt and troubles of the world into its bosom—became the playmate of the lonely infant, as well as it knew how. Sombre as it was, it put on the kindest of its moods to welcome her. It offered her the partridge-berries,

she decorated her hair, and her young waist, and became a nymph-child, or an infant dryad, or whatever else was in closest sympathy with the antique wood. In such guise had Pearl adorned herself, when he heard her mother's voice, and came slowly back. Slowly; for she saw the clergyman. (370-372)

이 의미심장한 “천천히”라는 단어는 그녀의 명량하며 성급한 기질로 특징지어지는 펄의 개성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의 특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개념이 보이지 않게 대조되고 있다. 펄이 헤스터와 딤즈테일을 만나러 시내를 건너가기를 거절할 때에, 이 시내는 “두 세계 사이의 경계,”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근원 때문에 펄 자신을 상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여행은 그 도덕적 황야가 포함되어 있는 “밤의 여행”에 비교된다.

Pearl, without responding in any manner to these honey-sweet expressions, remained on the other side of the brook. Now she fixed her bright, wild eyes on her mother, now on the minister, and now included them both in the same glance; as if to detect and explain to herself the relation which they bore to one another. For some unaccountable reason, as Arthur Dimmesdale felt the child's eyes upon himself, his hand - with that gesture so habitual as to have become involuntary - stole over his heart. At length, assuming a singular air of authority, Pearl stretched out her han, with the small forefinger extended, and pointing evidently toward her mother's breast. And beneath, in the mirror of the brook there was the flower-girdled and sunny image of little Pearl, pointing her small forefinger too. (377)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교도의 규정의 지배를 받아 온 딤즈테일은 스스로 이 모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올 수는 없다.

시내는 두 가지 관념 즉 청교주의와 초절주의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펄이 동정을 얻게 해 주는 숲은 청교주의와는 대조된다. 여기서 호손 자신이 양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직관적으로 느낀다. 호손은 두 가지 시각에서 숲의 상징성을 이용한다. 한 가지 관점에서 판단해 보건데, 숲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고통을 겪는 단계 또는 과정을 상징한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한 그가 자연의 동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것이 때로는 일시적으로만 지속될 뿐이지만 말이다.<sup>11)</sup>

---

11) Sculley Bradley, *A Norton Critical Edition* (New York, 1962), p.338.

### III. 등장인물의 상징

#### 1. 헤스터 프린

먼저 여주인공 헤스터를 살펴 보면, 그녀는 이 작품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간통을 범한 그녀는 그 사회에서 추방되어 고독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가한 사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사상을 낳게 되었다.

헤스터는 키가 크고 젊은데다가 아름다운 용모를 겸비한 당시 상류사회의 여인이다. 구약성경 에스더에서 2장 17절과 18절에 페르샤 왕은 탄압받고 약한 자들을 구한 용기와 충성심이 많은 미모의 처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는 대목이 있는데, 호손이 여주인공 이름을 에스더에서 따온 것은 헤스터라는 한 여자를 통해 엄격한 청교도 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을 옹호하려는 뜻으로 와그너는 밝히고 있다.

"Hester" is a modern form of "Esther" : and the Old Testament Esther is gifted with beauty, strength and dignity. Courageous and loyal, she defends a weak and oppressed people. And it offers another bit of evidence to those who like to stress the feminist implications of the novel, for we may see the "weaker sex" defended by Hester as but a variant of the weak people defended by Esther. 12)

이처럼 호손이 헤스터를 에스더에 비유하는 것은 청교도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인류의 비극을 초래한 후 죄의 문제는 항상 비극의 발단으로써 극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본질상 죄인이 되었다고 믿는 청교도들은 이 죄를 피하고 구원의 길을 걷기 위

---

12) Hyatt H. Waggoner, *Hawthorn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145.

헤서는 교회와 식민지의 법을 준수하여 바르게 살아야 했고, 당시에는 죄인을 엄히 다스리기까지 하였다. 엄격한 청교도적인 도덕률에 비추어 볼 때 헤스터에 대한 청교도적인 형벌은 그야말로 지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녀와 딘즈데일 목사와의 간통은 이야기가 전개되기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금실로 환상적으로 수놓은 주홍글자 A를 가슴에 달고 한쪽 팔에는 3개월쯤 되 보이는 죄의 직접적인 씨앗인 썰을 안은 채 맑은 하늘아래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옥문을 나서는 헤스터! 그 처형대 주변에는 형리들과 구경나온 사람들이 보이는데 가차 없는 수많은 시선들은 바로 이 여인의 가슴에 단 주홍글자 A에 집중되고 있다.

호손은 여기서 다섯 명의 여자들의 입을 통해 헤스터의 죄에 대한 갖가지 심판을 내리게 한다.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은 바로 헤스터를 비추는 다색채의 관점인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자칭 재판관들인 다섯 명의 여자들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죄의 심판에 대한 생각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당시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죄의 심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

It was a circumstance to be noted, on the summer morning when our story begins its course, that the women, of whom there were several in the crowd, appeared to take a peculiar interest in whatever penal infliction might be expected to ensue. "Goodwives," said a hard-featured dame of fifty, I'll tell you a piece of my mind.

It would be greatly for the public behoof, if we women, being of mature age church members in good reput, should have the handling of such malefactress as this Hester Prynne. What think ye, gossips? If the hussy stoop up for judgement before us five, that are now here in a knot together, would she came off with such a sentence as the worshipful magistrates have awarded? Marry, I trow not!

People say, "said another, "that the Reverend Master Dimmesdale, her godly pastor, takes it very grievously to heart that such a scandal should have come upon his congregation.

At the very least, they should have put the brand of a hot iron on

Hester Prynne's forehead. Madam Hester would have winced at that, I warrant me. But she -the naughty baggage- little will she care what they put upon the bodice of her gown!

Why, look you, She may cover it with a brooch, or suchlike heathenish adornment, and so walk the streets as brave as ever!<sup>13)</sup>

첫 번째의 혐상국은 50대 여자의 단호한 어조 속에는 헤스터의 죄에 대한 준엄한 처벌의 문제, 두 번째 여자의 온화한 어조 속에는 딘즈데일 목사의 종교적 심리적 갈등의 문제, 세 번째 중년부인의 강경하고 혹독한 어조 속에는 죄의 결과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가시적인 낙인을 찍어야 한다는 문제, 네 번째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여자의 좀 더 부드러운 어조 속에는 죄로 인한 내면적 고통내지는 양심의 가책의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매정하고 흉측하게 생긴 여자의 비정한 어조 속에는 ‘간음을 저지르면 안된다’라는 법을 어긴데 대한 마땅한 죽음의 문제가 죄의 대가에 대한 해석의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서, 죄의 결과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호손이 실재로서의 죄의 본질에 대하여 다양하게 여럿의 해석을 중립적인 툠 속에서 제시함으로써 죄의 본질은 어느 누구도 단수적인 해석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곧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의 투영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한 것임을 밝히는 장면이라 하겠다.

헤스터의 감금기간이 끝나고 그녀는 밝은 세상으로 나와 혼자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나날이 받는 치욕의 고통을 참아내다 보면 마침내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고 앞서 잃었던 것과는 달리 한층 훌륭한 성자 같은 순결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헤스터의 생각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인간적인 심경을 말해 주는 것이며 청교도주의의 정해진 인간의 위치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서 악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을 설정하려는 것이고 이는 또한 뉴잉글랜드 르네상스의 인간 해방 정신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헤스터가 아니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보는 파가운 시선들로 인하여 주눅이 들지 않을 사람은 없다. 죄인으로

13) 홍정균, *The Scarlet Letter*에 나타난 죄와 구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86), p.22-23.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인데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옥문 앞에 사람들도 그렇게 죄인의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헤스터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당당함을 가지고 나타났다. 죄에 대해 가혹한 청교도주의 사회에서 헤스터는 비록 죄를 저질렀으나 결코 추하거나 움츠러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살아간다. 실제로 감옥을 나설 때 그녀는 그 도시의 형리의 손을 뿌리치고 군중들을 향해 거만한 웃음을 띠는데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그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청교도 사회의 가혹한 법과 경직된 윤리관에 맞서는 그녀의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일 이 청교도의 무리 속에 가톨릭 교도가 섞여 있었다면 눈이 부실 것 같은 복장과 가슴에 갇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연상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연상에 불과하겠지만 수많은 저명한 화가들이 다투어 그리고자 한, 이 세상을 구제해 줄 아기를 낳으신 순결한 성모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Had there been a Papist among the crowd of Puritans, he might have seen in this beautiful woman, so picturesque in her attire and mien, and with the infant at her bosom, an object to remind him of the image of Divine Maternity, which so many illustrious painters have vied with one another to represent; something which should remind him, indeed, but only by contrast, of that sacred image of sinless motherhood, whose infant was to redeem the world.<sup>14)</sup>

호손은 헤스터 그녀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면, 즉 자신의 철학에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죄는 오히려 생활의 원동력이 되며, 사회가 짓밟기 쉬운 인간 존재의 권리를 구현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헤스터를 찬양하고 있다. 그녀의 속마음은 모든 죄인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부끄러움의 극치의 순간에 있다. 그렇지만 헤스터는 위엄과 의지의 여인이다. 그녀의 태도는 형벌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며 당당함까지 느끼게 한다.

14) 이승태, *The Scarlet Letter*에 나타난 죄의 다양한 해석 (문학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998), p.29-30.

호손은 또다시 세 명의 여자들을 등장시켜 세 번째 여자의 입을 통해 헤스터가 감옥 안에서 얼마만큼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헤스터에게 동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헤스터는 나중에 이 여인의 수의를 지어준다. 아마도 그녀에 대한 동정심이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모양이다.

헤스터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부터의 추방자가 되어 필과 함께 해변가 한적한 초가에서 인고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보스턴을 떠나 새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었으나, 덤즈데일에 대한 사랑, 필의 문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호손의 말을 빌면 사람은 일생을 채색한 장소의 주변에서 배회하고 서성거리게 마련이다. 더구나 그 색채가 어두울수록 한층 더 억누를 수 없으며 그녀의 죄와 불명예는 보스턴 땅에 박힌 뿌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녀의 마음속의 어두운 죄의 그림자는 그녀와 그녀의 깊은 영혼을 보스턴에 뗄 수 없는 고리로 묶어놓고 마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녀는 고립자가 되어 고립이라는 잿빛 동굴 속에서 고독한 고뇌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렇게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죄의 현실 앞에 가슴 무너지는 순간들을 맞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가 오가는 곳마다 그녀의 가슴에 단 “A”자를 보고 전염적인 공포를 느끼며 줄행랑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녀의 섬세하고 능란한 바느질 솜씨에 갖가지 주문은 많지만 단 한번도 청순한 신부의 하얀 면사포에 수를 놓아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 어린 처녀가 주홍글자를 결눈질로 보다가 자기의 순결이 더럽혀졌다는 듯 두 볼에 홍조를 띄는 모습에서, 헤스터는 그녀 자신의 죄의 현실과 죄의 심연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다. 내세를 위하여 현세의 온갖 쾌락을 물리치고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근엄한 생활을 일삼던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는 성도덕이 특히 준엄했으며 간통죄는 용서될 수 없었다. 이 속에서 간통죄를 범한 헤스터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 당시 여성들의 애정 없는 결혼과 생활에 복종하기 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결혼관을 가지고서, 덤즈데일과의 사랑을 사회적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시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헤스터의 죄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반항으로 볼 수 있으며 호손은 헤스터를 은연중에 용감한 이상주의자로 그리고 있다.

헤스터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회피하지 않는다.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밝히지 못하고 펄의 아버지로서 역할조차 할 수 없었던 소극적인 삶의 덤즈테일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자 했다. 나아가서 그녀는 성녀다운 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헤스터에게는 약한 의지를 보이는 덤즈테일과는 달리 적극적인 삶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헤스터는 자신을 대하는 덤즈테일의 태도에 충분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덤즈테일의 연약함을 수용하였고,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공동체를 대표하며 인정받는 목사인 덤즈테일은 헤스터와 대조되는 의존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덤즈테일이 칠링워드에 의해 결국은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헤스터는 전 남편을 만나 그의 희생자를 구하기 위해 힘써 보리라 결심하기도 했다. 또한 덤즈테일을 만나 칠링워드의 계락을 알리고자 할 때에도 헤스터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헤스터는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 존재했던 자유 진보론자로서 그녀의 존재는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의 사회를 혼란시키는 해악자이다. 그러나 그녀는 간음죄로 인해 주홍글자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면서 갖은 수치와 냉대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묵묵히 참으며 절제하는 속에서 봉사하며 참회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한 변화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죄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녀의 죄의 낙인인 A는 Able, Angel로 승화되어 그녀는 자신의 죄를 만인 앞에, 신 앞에 드러냄으로서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는 죄인 중에 가장 행복한 구원을 받은 죄인인 것이다.

## 2. 아서 덤즈테일

죄와 죄의식에 대한 표출이 극명한 인물은 덤즈테일이다. 호손은 덤즈테일을 소심하고, 무기력하며, 우울하고 피동적인 사람으로 그린다. 덤즈테일 목사는

그의 나약함과 비겁함,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명성과 지위로 인해 그의 죄를 깊숙이 숨긴 채 더 큰 고뇌와 함께 죄책감으로 스스로 내적 고립에 빠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덤즈데일의 감추어진 죄와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의 나약함을 살피고 그 결과 내적 고립의 상태를 어떻게 겪었는가를 생각하고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므로 구원의 길을 찾는 그의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면적 자아의 덤즈데일은 헤스터와 같이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나 외면적 자아의 그는 청교도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목사이다. 그는 보스턴 시민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다. 그는 청교도사회에서 청교도 율법과 교리에 의해서 살아야만 하는 목사로, 그의 말은 곧 법이요, 진리라고 할 만큼 청교도 사회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듯 당당하고 품위 있고 용기가 넘쳐 흘러야 할 그의 모습이 웬지 절망적이고 회의론적 분위기가 풍기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인 것이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나약하다는 특성을 지닌 인물이다. 덤즈데일은 자신의 나약함과 신앙체험의 부족으로 일시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여 헤스터와의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으나, 그는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밝힐 용기가 없었다.

덤즈데일에게 있어서는 헤스터의 존재는 항상 위선의 죄를 상기시켜 주며 죄의 고백에 대한 갈등을 하게 하는 죄의 파트너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뚜렷이 밝히고 떳떳하게 벌을 받고 있는 헤스터의 입장을 부러워하면서도 성직자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위선의 일생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심각한 죄의식의 갈등을 느낀다. 그로 인하여 자기의 위선된 심정의 고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But, not to suggest more obvious reasons, it may be that they are kept silent by the very constitution of their nature. Or can we not suppose it? Guilty as they may be, retaining, nevertheless, a zeal for God's glory and man's welfare, they shrink from displaying themselves black and filthy in the view of men; because, thenceforward, no good can be achieved by them; no evil of the past be redeemed by better service. So, to their own unutterable torment, they go about among their fellow creatures

looking pure as new fallen snow; while their hearts are all speckled and spotted with iniquity of which they can not rid themselves." (p 370)

딤즈데일은 총독과 윌슨목사의 청으로 처형대위에 서있는 헤스터에게 죄를 함께 저지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자 동요와 불안감을 드러낸다. 똑같이 죄를 저지른 딤즈데일 목사로서는 그 말이 자기의 죄를 숨긴데 대한 고통을 더욱 상기시켜 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딤즈데일 목사는 헤스터에게 죄의 상대를 고백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은 목사의 죄의식과 심적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었다. 헤스터의 심적 고통이 클수록 딤즈데일의 죄의식 역시 심각하게 나타난다. 즉 헤스터는 그 죄가 세상에 알려졌으나 딤즈데일은 자기 죄를 숨김으로써 죄의식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죄는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헤스터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었고 입술은 떨렸다. 딤즈데일은 자신의 죄는 숨긴 채 헤스터에게 공범자이며 자기 아버지인 남자의 이름을 고백하라고 강요한다. 하나님은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회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헤스터에게 설교한다. 심판자로서 심문을 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청교도 사회의 모순과 허위를 보여주는 듯 하다. 그는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헤스터가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딤즈데일은 헤스터에게 그 남자에 대한 그릇된 동정이나 애정으로 입을 다물지 말고 자신을 믿고 이야기하라고 하며 헤스터의 침묵이 공범자의 죄악에 위선을 더하라고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딤즈데일은 헤스터의 입장을 부러워하며 혼자서 7년이나 고민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만인 앞에 밝히지 못한데 대한 정신적 내면의 고통 외에도, 자신을 잔인하게 매질한다든지 단식과 밤샘 등으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고뇌로 인하여 정신적 내면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렇듯 자신의 이중의 죄에 대해 고민할수록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는 더욱 대 설교자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그로 하여금 더욱 견딜 수 없게 했다.

딤즈데일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죄로서 헤스터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간음죄이며, 두 번째는 영적인 죄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위선의 죄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호손은 딤즈데일의 간음죄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범죄 이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사 딤즈데일의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양심은 죄의 고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이를 숨김으로써 고통 받고 점차 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딤즈데일의 두 번째 죄인 간음죄의 은폐는 두 가지 죄 중에서 더 심각한 것이다. 모든 자연력은 죄의 고백을 진정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를 파멸시키는 것은 이러한 죄이다.

Dimmesdale's secondary guilt, his concealment of his initial transgression, is for the greater of the two, for all the powers of nature call so earnestly for the confession of sin. It is this sin which destroys him. 15)

호손은 딤즈데일 자신의 허위 사실이 단지 그의 현실과 정체성이 되기 위하여 그의 죄가 그를 청교주의 범주에 보다 더 단단히 묶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딤즈데일이 빠져있는 도덕적 혼란은, 청교도들이 이상으로 삼는 순수사이의 갈등에 의해 야기된 문제이다. 자신의 본능적 자아와 신의 순수를 지향하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도저히 결합시킬 수 없는 그의 궁지는 선택받은 인간들과 구제받지 못한 인간들로 날카롭게 양분하는 청교도 사회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고통과 번민 속에서 발버둥치는 딤즈데일의 죄의식의 원인은 외형적으로는 이성간의 애정을 죄악시한 청교도 사회의 엄격한 도덕률과 뉴잉글랜드 주민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목사에게 대한 사회의 견해가 그로 하여금 죄를 대중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은닉의 죄로 이끌었던 것이다.

---

15) 홍정균, op. cit., p.38.

### 3. 로저 칠링워드

호손은 칠링워드라는 독창적인 인물을 통해서 당시 청교도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다. 과학자이자 보스턴에서는 약초 전문가 겸 의사로서 뉴잉글랜드 주민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인 덤즈데일의 주치의로 함께 동거하며 친한 친구가 되고 싶은 낭 가장하며 영혼을 파멸시키는 헤스터의 옛 남편이다. 그가 처음 보스턴에 내려서 치형대 위에 있는 헤스터를 보고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라고 소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덤즈데일에게도 그의 지적 교만함을 이용하여 마음의 비밀을 자백하라 설득하는 장면은 다음을 통해 나타난다.

"They are new to me. I found them growing on a grave, which bore no tomb-stone, nor other memorial of the dead man, save these ugly weeds that have taken upon themselves to keep him in remembrance. They grew out of his heart, and typify, it may be, some hideous secret that was buried with his, and which he had done better to confess during his lifetime." (201)

이제 칠링워드는 정신의 병이라는 것은 당장에 육체를 통해 그 증세가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당신이 의사로 하여금 육체의 병을 고치게 하려면, 당신의 영혼이 받은 상처나 고민을 밝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 대해 소름끼치는 감정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덤즈데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No!...not to thee!.. not to an earthly physician!" cried Mr. Dimmesdale, passionately and turning his eyes, full and bright, and with a kind of fierceness, an old Roger Chillingworth "not to thee! Butm if it be the soul's disease, then do I commit myself to the one physician of the soul! He, if it stand with hid good pleasure, can cure, or he can kill! Let him do with me as, in his justice and wisdom, he shall see good. But who are thou, that meddlest in this matter?...that dares thrust himself between the sufferer and his God? (205)

헤스터가 정욕에 몸을 맡긴 것처럼 처를 빼앗긴 남자가 간부에게 복수심을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덤즈데일에게 품게 된 복수심 자체는 어찌면 그렇게까지 죄가 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잠자는 젊은 목사의 가슴에서 A자를 확인한 그는 자기가 헤스터와의 약속을 어기고 목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복수의 수단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불의를 저지른 여자의 남편이 받아야 할 치욕을 당하기 싫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칠링워드의 죄는 복수 자체에 있기보다 그 수단과 방법의 잔인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덤즈데일에 대한 칠링워드의 추적은 잔인할 정도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의 일념 하나로 목사의 숨은 비밀을 찾아내려는 칠링워드의 끊임없는 노력은 지적교만과 비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목사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 완전히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받아 내기 위해 그의 목숨을 끊지 않고 연장시킴을 반복하게 된다. 호손은 그의 성격과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이 작품을 통해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즉 원래 탐구심이 깊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 같은 그가 악마와 같은 사람으로 변모한다는 것을 예로 삼아 어떤 인간이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죄를 지은 덤즈데일과 칠링워드에 있어서 궁극적인 차이는 죄의 속죄 유무이다. 덤즈데일은 자신의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 반면 칠링워드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적인 면에만 너무 치우쳐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따뜻한 면이 없어져 버린 칠링워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또한 심성이 메마른 그에게는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교도들을 잔혹하게 처형하던 청교도들의 잔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호손은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신권의 영역을 침범하여 덤즈데일의 숨은 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칠링워드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판명 짓고 빗나간 지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칠링워드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며 악인으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초래된 그의 복수와 자청한 고립 속에 빠져 갈등하고 있는 그

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음을 밝히려 한다. 호손은 종교적인 교만 못지않게 지적인 교만도 최악의 근원임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단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지능적인 죄로서 편집광적인 이기욕으로 인간과 신에 대한 경애심을 상실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칠링워드가 간부의 정체를 찾아내려고 한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원초적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으나 그가 행한 잔인한 수단이나 방법에 그의 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칠링워드는 덤즈데일의 선의와 신뢰를 배반하고 그의 마음을 조정하여 끊임없이 심적인 고통을 가하려고 한 오만의 죄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다.

지적인 학자이며 의사인 칠링워드는 비록 늙고 침울한 기형적인 사람이지만, 따뜻한 가정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헤스터를 설득시켜 결혼하는데 성공하였다. 비록 그 결혼이 부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했지만 그가 애정이 깃든 가정을 원한 것이 무모한 꿈은 아니었다. 젊고 아름다운 헤스터와 결혼한 후 먼저 아내가 신대륙에 정착하고 나 이후 건너오기로 계획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인디언에게 붙잡혀 있다가 몸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2년 만에 그녀와 정착하기로 약속한 장소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생기 있고 따뜻함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간음을 상징하는 주홍글자를 달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안고 처형대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였다. 칠링워드가 기대했던 것은 아름다운 헤스터를 아내로 맞아 그녀가 늙고 황폐한 자신의 삶에 “인생에 기쁨과 따뜻함을 줄 한 개의 빛”이 되리라는 바램이었다. 그러나 헤스터와 덤즈데일의 간음의 죄는 그의 행복을 앗아가고 그는 주홍글자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I - a man of thought - the bookworm of great libraries, - a man already in decay, having given my best years to feed the hungry dream of knowledge, - what had I to do with youth and beauty like thine own! Misshapen from my birth-hour, how could I delude myself with the idea that intellectual gifts might veil physical deformity in a young girl's fantasy! (198)

칠링워드는 아내의 간음상대가 모두에게 존경받는 목사임을 알고 난 후부

터 복수를 성취할 것을 마음속에 맹세하고 덤즈데일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그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변신하여 목사의 주치의사의 자격으로 목사관에 입주하여 목사의 건강을 쾌유시킨다는 미명아래 환자인 덤즈데일과 밀착된 생활을 하게 된다.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철저한 계획과 위장을 하여 끈질긴 복수의 집념으로 덤즈데일의 육신을 파멸시키고 동시에 영혼의 파멸을 조장한다. 이는 아무리 배신당한 남편의 복수로 본다 할지라도 인간성에 대한 너무나도 잔혹한 음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호손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범한 최대의 죄는 잘못된 결혼, 불타는 복수의 의지, 적의 탐색과 확인, 또 그 과정의 은폐에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용서할 수 없는 적을 오직 한 사람의 친구로 가장해서 젊은 목사의 선의와 신뢰를 배신하고 그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망각하고 그의 마음의 지배자가 되어 심리적 고통을 준 데 그의 죄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냉혈인으로 마음의 신성을 침범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칠링워드는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을만하다. 호손은 인간 심정의 파괴를 최대의 죄악으로 보고 있다. 바로 칠링워드를 통해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작가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 그의 역할은 목사 자신의 죄를 문책하는 엄격한 청교도적 정신의 역할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의 흉하게 변모하는 얼굴과 외모가 나타내듯이 그는 냉혹한 과학자적인 관심으로 목사의 내면의 갈등을 탐색하고 그 미묘한 움직임 을 즐기는 비인간적인 상태로 전락해간다. 그는 덤즈데일의 마음속을 진찰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파헤쳐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덤즈데일은 더욱 죄의식에 몸부림치며 고통 당하게 된다.

"as he proceeded, a terrible fascination, a kind of fierce, though still calm, necessity seized the old man within its gripe and never set him free again, until he had dome all its bidding. He now dug into poor clergyman's heart like a miner searching for gold; or, rather, like a sexton delving into a grave, possibly in quest of a jewel that had been buried on the

dead man's bosom, but likely to find nothing save mortality and corruption.  
also for his own soul, of these were that he sought!" (210)

칠링워드는 헤스터의 탈선행위가 자신의 연약함과 헤스터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긴다. 그가 스스로 헤스터의 불명예의 원인을 자처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결혼으로 인해 그녀의 일생을 망쳐놓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저버린 헤스터의 죄를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만이 진정으로 남녀의 결합을 성화할 수 있는 것이고 애정 없는 형식만의 결혼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호손의 생각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The Unpardonable Sin might consist in a want of love and reverence for the Human Soul; in consequence of which, the investigator pried into its dark depths, not with a hope or purpose of making it better, but from a cold philosophical curiosity,- content that it should be wicked in whatever kind or degree, and only desiring to study it out, Would not this, in other words, be the separation of the intellect from the heart?<sup>16)</sup>

이처럼 호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찰막하게 논하고 있다. 그는 다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한 채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고들어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죄라고 보았다. 칠링워드에게 죄는 형법에 기초한 죄라기보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혹은 심리적인 죄이며 덤스테일을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서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

16) 조소형, "The Scarlet Letter의 연구" (문학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9), p.43.

## IV. 결론

호손은 자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연과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정신상태, 정서적인 행위를 연결시키며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장미덤불은 청교도들의 냉혹함에 대해 인간의 슬픔과 나약함에 동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으며, 여기에 나타난 옥문 앞의 잡초며, 옥문의 색깔 등은 청교도 사상의 어둡고 엄격한 면을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미의 붉은 색깔은 반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다. 작가는 그의 작품의 어두운 면을 이 장미 덩굴이 완화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어 작가의 양면적 태도에 전조를 드리운다.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빛은 여러 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지만 본인은 자연이 인간에게 나타내는 인간적인 심성의 노출로서 보고 있다. 물론 청교도들의 죄에 대한 결백증적인 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헤스터가 덤즈데일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어 결국 주홍글자를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하는 치욕의 운명을 겪어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헤스터를 향해 내려 쏘이는 햇빛은 헤스터의 치욕의 상징인 주홍글자를 노출하고자 하는 의도만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숲 속에서 헤스터가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모든 구속에서부터 탈피 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가슴에 단 주홍글씨를 던져버릴 때 나타나는 햇빛은 청교도 사상에 대한 이교도적인 자연의 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햇빛은 청교도적인 견해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청교도들의 죄에 대한 결백증적인 태도나 일순간에 없어지는 하나 자연의 악의적인 태도, 혹은 동정심의 결여 등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으며, 초월 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과 자연의 승인, 혹은 자연의 인간의 심성의 노출로 해석되어 지는 것이다.

숲은 특정한 사회적 의식과 관습이 없는 자연세계를 의미 한다고 하겠다. 숲 속에서 덤즈데일과 헤스터의 재회는 신비로운 기쁨으로 충만되었고 이 말은 청교도사회의 의식의 지배를 떠난 자연의 환경에 있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런 성질을 찬양함을 의미한다.

헤스터는 완고한 청교도들에 의해 불명예스럽고 고뇌하면서 살아가도록 강요당하나, 그녀의 희생과 사려 깊은 행실은 마을 사람들의 냉혹함과 완고함을 누

그러 뜨려준다. 내 생각에 헤스터에게 고뇌, 불명예와 고생은 사람을 정신적인 개량으로 이끄는 밤의 여행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딤스데일도 자신의 감추어진 죄로 인해 또한 고뇌와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밝히게 된다. 이러한 공식적 표명은 밤의 여행 역할을 했다. 자연의 타락을 극복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헤스터와 딤스데일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윤리적 성장과 정신적인 조화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은 또한 그들에게 동정을 보여준다. 특히, 호손은 청교도들의 동정심의 부재를 심하게 비난한다. 때때로 악의가 있거나 어리둥절하다고는 하지만 자연은 헤스터와 펄과 같은 일부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낸다. 악인으로 나타나는 칠링워드는 균형없는 인간성을 의미한다. 마치 황금을 캐는 광부처럼, 무덤을 파는 인부처럼, 보물을 훔쳐내는 도적처럼 온갖 지혜의 축각을 곤두세운 인물이다.

우리는 상징성을 자유자재로 이용한 호손이 종교적 감각이 너무나 강해서 원죄와는 은밀한 비교를 생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호손이 표현하고자 한 자연과 등장인물의 상징성은 청교도 사상과 초월주의 간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구산. 『*Transformation of The Scarlet Letter*』. 영어영문학, 25호.  
한국영어영문학회, 1968.
- 김영숙. 『딤즈데일의 죄의 양상과 그 전개상』.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김영철. 『*Nathaniel Hawthorne and his Concept of Salvation*』. Seoul, 1981.
- 노장식. 『*The Structure Prefiguration of The scarlet letter*』.  
소석 박상용 박사 화갑기념 논총, 서울 : 형설출판사, 1981.
- 박영의. 『*Nathaniel Hawthorne*』. 서울: 형설출판사, 1982.
- 윤영춘. 『주홍글씨』. 신원문화사, 2003.
- 이승태. 『*The Scarlet Letter*에 나타난 죄의 다양한 해석』. 문학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998.
- 장성언. 『*Hawthorne's use of Light and Dark in The Scarlet Letter*』.  
피천득 선생 화갑기념 논총, 서울 : 삼화출판사, 1971.
- 홍정균. 『*The Scarlet Letter*에 나타난 죄와 구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86.
- Arlin, Turner. *Nthaniel Hawthorne*. New York, Barns & Noble INC., 1969.

Austin Warren. *Nathaniel Hawthorne*. American Book Company, 1934.

Bell, Michel Davitt. *The Development of American Rom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Ernest Sandeen. "*The Scarlet Letter as a Love Story*".  
New York, W.W. Norton & Co., 1988.

F.O. Mattiessen. *American Renaiss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66.

Fogle Richard H. *Hawthorne's Fiction : The Light and the Dark*.  
Norman, Th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64.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1959.

James Henry. *Hawthorne*. London, Macmillan, 1879.

Levin, David. *The Scarlet Letter with Essays in Criticism A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1868.

Mildred Silver. *A brief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Kagawa-ken, 1966.

Pak JongHwa. *Hawthorne's Ambivalent Use Of Symbolism in The Scarlet Letter*  
Ph.d. dissertation, University, 1983.

Hyatt H. Waggoner. *Hawthorne: A Critical Study*. Cambridge, 1963.

Spiller, Robert E.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67.